

주제발표 2

군사전략가로서의 이순신 장군의 역할(가치와 평가)

해군사관학교 사회인문학처 교수

이 민 웅

군사전략가로서의 이순신 장군의 역할(가치와 평가)

이 민 응*

- 목 차 -

1. 머리말 / 43
2. 임진왜란 이전의 문무겸전과 전략 준비 / 44
3.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 / 48
4. 맺음말 / 54

1. 머리말

임진왜란 이전 시기의 피폐한 정치 상황과 문란한 군정(軍政), 해이해진 국방의식 등으로 인해 전쟁 초기의 상황은 한 마디로 토붕와해(土崩瓦解)의 형국이었다. 개전 후 불과 20여 일만에 수도 한양이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당시 전쟁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수군, 그 중에도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도 수군은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였고, 옥포 해전에서 최초로 승리한 이래 임진년(1592) 한 해 동안 모든 해전에서 전승(全勝)을 거두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순신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참전한 거의 모든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는데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과연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했는가.

지금까지 조선 수군의 승리 원인은 대체로 판옥선(板屋船)과 거북선[龜船] 등 군선(軍船)과 각종 총통(銃筒) 등의 화기(火器)를 포함한 무기체계의 우위,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그의 전략전술 능력에 있다고 보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승인(勝因) 중에서도 특히 그의 전략전술 능력과 관련해 위대한 전략가로서의 이순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해군사관학교 사회인문학처 교수

이순신의 전략전술은 그의 성장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무엇을 수업했는가 하는 문제는 훗날 무장으로 성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현재까지 중요하게 강조되는 무장의 문무겸전(文武兼全)의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이순신의 성장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함께 이순신이 무과(武科) 준비 과정에서 했을 전략전술 관련 학습을 유추해보고, 임진왜란 직전의 전략적인 논의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먼저 해양전략과 관련된 기본 용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이 보여준 전략과 전술을 시기별로 해전과 연계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임진년 첫 해와 강화교섭기, 그리고 정유재란 시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전략전술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이와 같이 이순신의 임란 당시 전략과 각각의 해전에서 사용한 전술(戰術)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임진왜란사와 이순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2. 임진왜란 이전의 문무겸전과 전략 준비

이순신은 본관이 덕수(德水)이고, 고려말기에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중시조(中始祖) 이돈수(李敦守)로부터 12세손이다. 중랑장(中郎將)은 고려시대 무반(武班)의 정5품 관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벼슬이다. 중시조로부터 4대째인 윤번(允蕃) 때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처음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이로부터 무반에서 양반 사대부 가문(문반)으로 변신하였다.

이순신의 현조부(玄祖父), 변(邊)은 문반 가문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그는 30세 무렵에 과거에 급제한 후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가 한어(漢語)를 수학하여 능통하게 되었고,¹⁾ 이후 대명(對明) 외교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약하였다. 세종 재위 말년에는 이조(吏曹)와 각조 참판(參判; 종2품)을 역임하였고,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 이후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세조 즉위 후에는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²⁾

그는 세종대에 출사한 후 성종 4년(1473년)에 83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여 년간 6명의 임금에 섬기며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

1) 『世宗實錄』 권63, 세종 16년 2월 甲寅

2) 『단종실록』 권8, 단종 1년 10월 戊戌 ; 같은 책 권9, 11월 庚申 ;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12월 戊辰

명에 사신으로 수십 차례나 다녀왔고 고위 관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번(李邊) 대에 양반 사대부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틀을 마련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뒤를 이어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이거(李据)인데, 이순신의 증조부(曾祖父)가 된다. 이거는 성종 11년(1480), 과거에 급제한 뒤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 사경(司經) 등 주로 경연관(經筵官)과 학술 기관에서 근무하였다.³⁾ 이후 그는 성종 22년(1491)에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정4품)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이거는 부정한 관리에 대해 신랄한 탄핵을 가해 호랑이 장령[虎掌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이거는 성종 말년에 세자인 연산군의 교육을 맡은 시강원(侍講院) 보덕(輔德; 종3품)이 되었다. 그는 연산군 즉위 초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당상관으로 승차하여 순천부사(順天府使)를 지낸 뒤,⁴⁾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역임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관직 생활을 거쳤는데, 연산군 8년(1502)에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간 관직에 있었다.

이순신의 조부(祖父), 이백록(李百祿)은 지금까지 기묘사화(己卯士禍; 중종 14년(1519))에 연루되어 참변을 당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기묘사화 이후에 그가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간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⁵⁾ 다만 그가 조광조 등 사림파에 동조한 결과 탈고신(奪告身)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백록은 조상의 덕으로 참봉과 봉사 벼슬을 역임하였다.

다음으로 이순신의 부친, 이정(李貞)은 전혀 벼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⁶⁾ 그러나 아들 요신(堯臣)과 순신(舜臣)의 과거(科擧) 기록에 의하면, 요신이 1573년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 그는 무반의 종6품, 병절교위(秉節校尉)로 기재되어 있고 순신의 무과 기록에는 종5품인 창신교위(彰信校尉)로 나와 있다.⁷⁾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의 벼슬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3) 사경(司經)은 정7품의 경연관(經筵官; 국왕에게 유학의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진강(進講)하는 관직)이고 홍문관 박사 역시 학술 기관의 관직이다.

4) 『성종실록』 권287, 성종 25년 2월 乙酉 ; 『연산군일기』 권21, 연산군 3년 1월 丙午

5) 『중종실록』 권77, 중종 29년 8월 壬子

6) 유성룡, 『懲毖錄』 권2 ‘祖百祿 以門蔭仕 父貞 不仕’

7) 『司馬榜目』 1573년 ; 『武科榜目』 1576년 ; 『이충무공전서』 권10, 附錄二 「行狀」에는 병절교위로만 기록되고 있다.

중시조로부터 12대째인 이순신은 두 형님과 함께 젊은 시절 문과(文科)를 준비하였고, 재능이 있어 성공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한다. 그의 중형(仲兄) 요신(堯臣)과 서애 유성룡이 같은 나이로 함께 동학(東學; 서울 동쪽에 있던 학교)에 재학하면서 교유(交遊)하였다. 이러한 점은 『선조실록』에 보이는 유성룡의 언급과 『징비록』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

이처럼 이순신이 20세 이전까지 문과를 준비하면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은 물론 문·사·철(文·史·哲) 분야의 많은 서적을 독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난중일기에 몇 차례 나오는 점치는 장면으로 볼 때, 그는 『주역(周易)』에도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 중에도 한시(漢詩)를 짓거나 『송사(宋史)』를 읽고 독후감을 남기는 등 그의 문학적 수준은 당시의 여느 문신과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이순신이 젊은 시절 자연스럽게 체득한 학문적 소양은 오늘날까지 고급 지휘관의 자격 요건으로 꼽히는 문무겸전(文武兼全)의 문(文) 분야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순신은 이러한 유학적 기질을 바탕으로 22세부터 무과(武科) 준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병법서(兵法書)를 배우고 전략전술의 기본을 다져 나갔을 것이다.

우선 그는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로부터 전래된 병법서 일곱 종류를 모아 엮은 『무경칠서(武經七書)』를 학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경칠서는 조선시대 무과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⁹⁾

알려진 바와 같이 무경칠서에는 『손자병법(孫子兵法)』, 『오자병법(吳子兵法)』, 『육도(六韜)』, 『삼략(三略)』,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춘추전국 시대의 오랜 전란기를 거치면서 축적된 실전(實戰) 경험과 동양적인 인본사상(人本思想)이 배합된 걸작들로 치병(治兵)이나 용병(用兵) 원리 뿐 아니라 치국(治國)의 도리까지 포괄하는 최고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순신이 학습했을 전통 병서(兵書)로는 당시의 군사제도를 다룬 『제승방략(制勝方略)』을 비롯하여 진법(陣法)과 군사훈련에 관한 『진법』과 『오위진법(五衛陣法)』, 무기와 병학(兵學) 분야의 『병기도설(兵器圖

8)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1월 戊午; 유성룡, 『懲毖錄』 권2(앞과 같음)

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武經七書』(서울; 서라벌인쇄(주)) 참조.

說』과 『병장설(兵將說)』, 그리고 전쟁사와 명장(名將)을 소개한 『역대병요(歷代兵要)』와 『동국병감(東國兵鑑)』 등 당시까지 출간된 대부분의 병서들이다.¹⁰⁾

이순신은 무과에 합격한 이후에도 전략과 전술에 관련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증명할 예를 들면,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2년 3월 초에 당시 좌의정 유성룡에게서 편지와 함께 『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이라는 최신의 병서를 받고, 즉시 참모진과 밤새 살펴보니 만고에 없는 훌륭한 책이었다는 그의 일기 내용이 있다.¹¹⁾

『증손전수방략』이 어떤 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책의 제목만 보더라도 ‘싸우거나 지키는 방법(략)을 더하거나 뺀 책’이므로 당시까지 나온 병법서 중 최신의 내용을 담은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왜구의 영향으로 수군력 증강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수군력 강화에 근간이 되는 군선(軍船) 건조를 위해 태종과 세종은 외국 기술자까지 영입하여 우수한 성능의 군선을 만들었다. 또한 태종 초기에 400여 척이었던 군선 척수가 세종 후반에는 800척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화기(火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세종 후반에는 화약의 양은 반으로 줄이고 사정거리는 배로 늘린 새로운 화포를 제작하여 실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군 군액(軍額) 면에서도 세종대에 약 5만 명이상이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 단계에는 48,800명으로 조선전기에는 대략 5만 내외의 병력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 수군을 강화한 것은 왜구 대응책으로 육상에서보다 해상에서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군 강화 정책이 조선 전기 내내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조대에 처음 제기된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이 중종(中宗)대인 16세기 초에 조정에서 다시 한 번 공론화되었던 것이다.¹²⁾

‘방왜육전론’이란 일본의 장기는 수전(水戰)이고 조선은 기병(騎兵)이 장기

10) 정해은, 2004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차례’와 ‘머리말’ 참조. ; 이 글에서 언급한 각 병서는 정해은의 책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11) 이순신, 『난중일기』 壬辰年(1592) 3월 5일

12) 장학근, 1989 『조선시대해양방위사 연구』, 창미사, 제5장 참조.

이므로, 일본이 강한 해전(海戰)을 피하고 상륙하기를 기다렸다가 육지에서 적군을 기병 전술로 제압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방왜육전론이 제기된 것은 당시 수군이 해안 지역에 城堡를 구축하는 등 육상에 기지를 갖추게 된 변화가 있었던 것과, 수군은 세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경비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16세기의 조선 수군은 방군수포(放軍收布) 등 몇 가지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국방체제 전반의 약화 추세에 따라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진 상황이었다.

임진왜란 직전 시기에 선조와 조정은 신립(申瑬)과 이일(李鎰) 등 여진족과의 북방 전투에서 공을 세운 용장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이 무렵 신립 등은 전쟁 대비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군무용론’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당시 조선 수군의 실상이 매우 허술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용한 전력을 하나로 합쳐서 육전(陸戰)을 통해 적의 침입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순신은 조선 초기 이래의 해양방위 전략 즉,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육군과 수군 어느 쪽도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³⁾ 이때 조정은 이순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겨 수군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임란 직전 시기에 조선은 이순신과 원균 등을 수군절도사로 임명해 일본의 침입에 대비한 수군 전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조선초기이래의 해양방위 전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3.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

이순신의 전략전술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해양전략(海洋戰略)과 관련된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략(戰略; Strategy)이란 과업이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한 개념(Conception) 혹은 사고 과정(Thought Process)이라 할 수 있다.¹⁴⁾ 처음에 전략은 시·공간적으로 전시·전장에서만 사용되었던 순수한 군사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국가나 기업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정책·책략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일단 본고에서 다룰 전략의

13) 『宣廟中興志』 권1, 辛卯年 7月 “命修湖嶺城邑”; 『李忠武公全書』 권9, 李芬 撰 「行錄」

14) 김현기, 1998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제2장과 기타 『전략개론』 서적의 일반적 정의를 참조하였다.

범위는 군사적인 해양전략 문제에 한정하기로 한다.¹⁵⁾

해양전략은 크게 ‘해상거부전략(海上拒否戰略)’과 ‘해양통제전략(海洋統制戰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대륙국가가 지상군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국 해양에 대한 적국의 사용 및 접근을 거부하는 소극적 방어 전략이고, 후자는 반대로 해양력을 중심으로 삼아 적국의 해양 접근이나 사용을 통제하고 자국의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해상통제전략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¹⁶⁾

한편, 해양전략과 관련된 핵심적인 용어로 제해권(制海權; command of the sea)을 들 수 있다. 제해권은 근대 미국의 해양전략 기틀을 세웠던 마한이 그의 전략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았던 것이다. ‘제해권’이란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능력 또는 상태”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해양통제전략’의 실제 수행 방법, 즉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결전(決戰)’, ‘현존함대(現存艦隊)’, ‘항만봉쇄(艦隊封鎖)’ 등 세 가지 전략 모델이 있다. 먼저 결전전략(decisive battle)이란 적의 함대 규모와는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용한 세력을 집중해서 적국 함대를 공략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말한다.¹⁷⁾ 둘째, 현존함대전략(fleet in being)은 상대적으로 약세(弱勢)의 함대가 취했던 방법으로 직접적인 함대 결전을 회피하고 세력을 보존함으로써 적 함대의 전투 또는 공격의지 발동을 견제하는 전략이다.¹⁸⁾ 셋째, 함대봉쇄(fleet blockade)는 결전을 회피하고 현존함대전략을 채택한 적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항만을 봉쇄하는 전략을 말한다.¹⁹⁾

이 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해양전략에 대해 앞의 세 가지 전략 모델 중 ‘결전 전략’과 ‘현존함대전략’을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15) 전술(戰術)은 전략보다 하위 개념으로 각각의 전투와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술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16) 김현기, 1998 같은 책, 제 1, 2, 6장 ;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 1890(김주식 역, 1999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2(서울: 책세상)) 참조.

17) 결전전략은 강력한 해군력을 소유했던 영국이 세계 제국으로 성장한 16세기 말부터 견지한 전략으로 아국과 적국의 세력 여하에 관계없이 함대간의 해전을 통해 적국의 함대를 무력화시키고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가장 적극적인 해양전략이다.

18) 현존함대전략은 1690년 비치헤드 해전 당시 영국의 험버트 제독이 프랑스의 뚜르빌 제독의 우세한 함대에 대항하여 수행한 방어적 함대행동에서 유래되었다. 현존함대는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을 가진 함대가 강력한 적 주력함대와의 결전은 회피하되 주력으로부터 분리된 소규모 부대를 각개격파함으로써 점차 적의 세력을 약화시켜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전략이다.

19)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해군대학, 2001, pp 52~55. 참조.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일본의 침입에 전혀 대항하지 못한 채 방위체제가 붕괴되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은 첫 해 (1592년) 5월 초부터 시작된 주요 해전에서 전승을 거두며 제해권을 장악해 나감으로써 호남 지방을 지켜내고 전국(戰局)을 역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순신의 전쟁 초기 해양전략은 한 마디로 ‘결전 전략’이었다. 제1차 출전부터 제4차 출전까지 경상도 해역으로 진출하여 적 함대를 발견하는 대로 공격하여 격파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견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92년 5월 7일 최초로 벌어진 옥포해전부터 제2차 출전 마지막 해전인 6월 7일의 울포해전까지 일곱 차례 해전은 조선 연합함대와 일본의 각 지역 대명(大名) 휘하의 소규모 함대간에 펼쳐진 전투였다. 이순신은 이 일곱 차례 해전에서 각각의 전장(戰場) 상황에 따라 기습, 유인, 추격 등 다양한 작전(作戰)을 펼쳐 모두 승리하는 쾌거를 올렸다.²⁰⁾

계속된 조선 수군의 제3차 출전과 제4차 출전의 ‘한산대첩’과 ‘부산포해전’ 승리는 이순신의 ‘결전전략’과 전술이 대성공을 거둔 결정적인 해전들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592년 7월 8일의 한산대첩은 일본의 정예 함대와 조선 연합함대 간의 실질적인 의미의 첫 번째 해전이었고, 그 결과는 일본 함대의 참패와 조선 수군이 부산 지역을 제외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 벌어진 부산포해전은 조선 수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수군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당시까지 최대 규모인 130여 척을 격파한 해전이였다.²¹⁾

한편,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일본의 해전 전술(戰術)을 비교해보면 해전 승패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즉, 일본 수군의 당시 해전술은 병력이 적함에 올라 백병전을 벌이는 일종의 ‘등선육박전술’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 수군은 적함을 일정 거리에서 함포로 공격하여 타격을 가하고 접근하면 화살로 공격해서 인명을 살상하거나 적함을 불태우는 일본 수군과는 차원이 다른 전술을 펼쳤다. 따라서 일본 수군은 조선의 군선에 접근하기 이전에 이미 파괴되거나 불태워졌기 때문에 뒤쳐진 전술에서부터 이미 패하고 있었던 것

20) 이민웅, 2004 같은 책, 제2장 참조.

21) 이민웅, 2004 같은 책, 제2장 참조.(앞 주와 같음)

이다.²²⁾

이와 같은 조선 수군의 해전 승리의 영향으로 이후 조선 조정의 해양전략은 적극적인 ‘결전전략’을 견지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전체로 볼 때 의병의 국지적인 승리 외에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한 것은 조선의 수군뿐이었다. 때문에 조선 조정은 계사년(癸巳年; 1593) 연초부터 적극적인 ‘결전전략’에 따라 이순신과 조선 수군에게 일본 함대를 색출하여 격멸하라는 명령을 몇 차례 내렸다.²³⁾

그러나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지며 강화 교섭이 본격화되는 1593년 중반 이후부터는 조선 조정이 견지한 ‘결전전략’이 수군의 당시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들면, 우선 전쟁초기부터 1595년 가을까지 흉년이 거듭되면서 식량(군량)의 부족 상태가 심각했고 이는 곧 전염병의 치성으로 연결되었다. 조선 수군도 전염병 피해를 크게 입어 최대 21,500명이었던 병력이 1595년 봄에는 4,180명까지 줄었다. 이런 상황은 수군만이 아니라 전쟁 참가국 전체가 마찬가지였고, 이런 상황 때문에 강화 교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군령권을 가진 명군 측에서는 조선 수군에게 일본 수군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조처까지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순신은 강화교섭기에 전쟁 상황이 바뀔에 따라 ‘현존함대전략’을 선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병력이 줄어 현재 준비된 군선조차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일본 수군은 해안의 왜성에 웅거한 채 해전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순신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군량의 자체 해결을 위해 둔전을 경영하고, 어염(漁鹽)의 이익을 거두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둘째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선 수군의 군선이 250척 정도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본 수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군선 추가 건조를 추진하였다.²⁴⁾ 넷째, 군선 뿐 아니라 화기 등 무기를 생산하면

22) 이민웅, 2004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제1장 참조.

23) 李舜臣, 『壬辰狀草』와 『亂中日記』의 1593년 이후 기록에서 일본군을 찾아 격멸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지속적으로 내려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24) 이민웅, 2004 같은 책, 제3장 참조.

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 특히 군선과 무기를 제작한 것은 그가 해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일본 수군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순신은 한산도에 임시 통제영을 마련하고 견내량을 막아지키는 ‘현존함대전략’을 선택하고 한동안 이를 견지하였다. 그는 계속되는 선조와 조정의 부산 지역 출전 명령을 받고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출전 명령을 거부하였다.²⁵⁾ 그 이유는 첫째, 부산까지 조선 함대가 이동할 때 정박할만한 항구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선 함대의 기동 상황이 적에게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셋째 다른 해역과 달리 부산 쪽은 곧바로 외해(外海)이기 때문에 평저선인 판옥선의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선조는 이순신이 통제사가 된 이후 게을러졌다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본의 요시라(要時羅)를 통한 반간계(反間計)와 원균을 지지한 서인(西人)의 영향 등 몇 가지 요인이 겹쳐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직전에 통제사가 교체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선조가 견지했던 ‘결전전략’에 따른 수군을 이용한 부산 지역 공격 의도와 이순신의 ‘현존함대전략’과 이에 따른 부산 해역 출전 불가 방침 사이의 전략적인 시각 차이는 통제사가 교체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하였다.

이순신을 대신해 통제사가 된 원균 역시 자신이 동조했던 ‘결전전략’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육군의 선제공격 없이 수군 단독으로 적진 깊숙이 출전할 수 없음을 여러 번 주장하였다.²⁶⁾ 그러나 선조와 도원수 등 지휘부는 무조건 해상 결전을 벌일 것을 명령하였고, 결국 무리한 출동을 강행한 결과 이전 시기의 패배를 반성하고 나름대로의 전술을 준비한 강력한 일본 함대에게 악전고투 끝에 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²⁷⁾

정유재란 초기 칠천량해전(1597. 7.16)의 참패는 조선 조정과 선조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후 선조는 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에게 상황에 따라 해전을 포기하고 상륙해서 육전을 돕는 것도 가하다는 뜻을 전달하였

25) 장학근, 1993 「충무공 이순신의 하옥죄명, 전몰상황, 자살론, 순국론에 관한 검토」 『임란수군활동 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26) 『선조실록』 권 87, 선조 30년 4월 己卯

27) 이민웅, 2002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배경과 원균함대의 패전 경위」 『한국문화』 2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다.²⁸⁾ 즉, 조선 조정은 칠천량해전 패배의 결과 우리 수군이 궤멸된 현실을 인식하고 ‘해양전략’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조정이 해양전략을 포기했던 것과 달리 이순신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존함대전략’을 견지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는 일본 함대에 대항하기 위한 전력을 구축할 때까지 해전을 회피하면서, 한편으로 전투력을 보강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해로(海路)상의 요충지를 막아 지키는 ‘현존함대전략’을 고수하였다. 칠천량해전에서 패배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펼쳐진 명량해전(鳴梁海戰; 1597. 9.16)에서는 이순신의 지형(地形)과 조류(潮流)를 활용한 최고의 전술과 주변 지역 백성의 지원 등에 힘입어 조선 수군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²⁹⁾

명량해전의 승리는 조선 수군이 재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후조선 수군은 현재의 목포 앞바다에 위치한 고하도(高下島)에서 월동(越冬)한 뒤, 무술년(戊戌年; 1598) 2월에 고금도(古今島)로 통제영을 옮겼다. 고금도 통제영은 고하도와 달리 자체의 식량 생산이 가능했고, 주변 지역으로부터 병력의 유입도 많아서 1년이 채 못 되어서 조선 수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³⁰⁾

조선 수군이 전력을 회복하자 이순신의 전략은 다시 ‘현존함대전략’에서 ‘결전전략’으로 변화되었다. 통제영을 고하도에서 고금도로 이동한 것도 남해에서의 원활한 작전을 위한 조치였고, 이제 다시 남해에서 적 함대를 찾아 공략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로 펼쳐진 노량해전(露梁海戰; 1598.11.19.)은 이와 같은 ‘결전전략’에 의한 해전이었다.³¹⁾ 이미 노량해전 이전에 순천 예교성에 주둔 중이던 소서행장(小西行長) 부대를 수륙 합동으로 공략하는 작전을 1개월여 동안 지속한 뒤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천과 남해 등지에서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맞아 노량해전이 펼쳐지게 되었다.

28)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 1 李芬 撰 「行錄」 丁酉年 9月

29) 趙成都, 1982 「명량해전 연구」 『군사』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이민웅, 2002 「명량해전의 경과와 주요 쟁점 고찰」 『군사』 47 참조.

30) 고금도 통제영 시절, 이순신은 강화교섭기 동안 조선 수군의 전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펼쳤던 군량확보, 병력충원, 전선건조, 무기제작 및 군사훈련 등의 조치를 계속하였다.

31) 이민웅, 2004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제5장 참조.

노량해전은 이순신의 결정에 따라 앞뒤에서 일본군의 협공을 당할 우려를 막고, 오히려 조명 연합수군이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일본 대함대를 노량 해구에서 맞아 처음부터 격렬한 전투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해로(海路)로 잘못 알고 일본 함대가 관음포(觀音浦)에 갇히면서 더욱 치열한 전투로 펼쳐진 노량해전은 이순신이 적탄에 맞아 순국한 가운데 200여 척 격파, 100여 척 나포 등 조명 연합수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적 위기인 임진왜란을 극복해 내는 해전에서의 전승을 이끈 이순신은 당시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려고 한다.

이순신은 양반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20세까지 문과를 준비하였다. 그의 선대를 보면 그의 현조부 이변(李邊)은 세종대를 대표하는 외교전문가였고 50여년을 고위관직에 머물며 집안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다졌고, 증조부 이거(李据)는 연산군의 스승으로 병조참의를 지낸 인물이다. 조부와 부친이 문과를 거치지 못했지만, 이순신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양반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문과를 준비하면서 위대한 군사전략가에게 필요한 문무겸전의 문 분야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었다.

무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무경칠서를 비롯하여 기존부터 전해져 오던 무학과 병학의 기본 서적을 공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조선전기에 발간된 다양한 병서류(兵書類)도 섭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쟁에 대비한 군사 전략을 습득하였고, 무과 급제 이후 전쟁 직전까지도 전략전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해양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극적인 ‘해양거부 전략’이 아닌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을 견지하였다. 다만, 처한 상황 변화에 따라 더 적극적인 ‘결전전략’과 다소 덜 적극적인 ‘현존함대전략’을 교대로 펼쳤던 것이다.

전쟁 첫해인 1592년, 4차례의 출전과 10회의 해전은 모두 전라도 해역이 아닌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하여 적 함대를 수색하여 격파한 적극적인 ‘결전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첫 해 해전의 승리는 임진왜란 초기 유일한 승전이었고, 전쟁의 전체 국면 전환을 이끈 값진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후 칠천량해전에서 패할 때까지 적극적인 '결전전략'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강화교섭기가 되면서 식량부족과 전염병의 치성 등으로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지고 일본 수군도 해전을 회피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순신은 한편으로 수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견내량을 막아 지키는 '현존함대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여기에는 부산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적인 이유도 있었다.

이러한 이순신의 전략과 달리 선조와 조정은 '결전전략'을 견지한 채 부산출전을 강요하였고, 결국 이러한 전략 차이는 통제사가 원균으로 교체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처음에 선조와 조정의 '결전전략'에 동조했던 원균도 통제사가 된 이후 이순신과 같은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무리한 출전 끝에 칠천량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칠천량해전 이후 조선 조정은 수군의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순신에게 해양전략을 포기하고 육전에 임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다시 '현존함대전략'을 견지한 채 조선 수군의 전력 재건을 추진하면서, 두 달 만에 펼쳐진 명량해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 냈다.

이후 겨울을 보내고 통제영을 고금도로 이동한 1598년 2월 이후 이순신은 단 시간 내에 조선 수군의 전력 재건에 성공하였다. 노량해전을 앞두고 그는 다시 '결전전략'을 선택하였고, 물러가는 적에게 일격을 가해 마지막 해전에서 임란 최대의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다.

요컨대 임진왜란 시기 최고의 군사전략가로서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 시기를 통해 적극적인 해양전략인 '해양통제전략'을 견지하였고, 상황에 따라 초기에는 '결전전략'을 강화교섭기에는 '현존함대전략'을 그리고 마지막 명량해전 이후에는 다시 '결전전략'을 펼쳐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다.